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8 호 [루체 제 25882 호] 주제 107 (2018)년 1월 8일 (월요일)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혁명적인 총공세를 벌려나가자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자강도, 남포시군 중대회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  
파업을 절저히 판  
철하기 위한 평안  
남도, 평안북도, 황  
해남도, 황해북도,  
자강도, 남포시군  
중대회가 8일과 7  
일에 각각 진행되  
었다.

대회장들은 당의  
령도 따라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롭게 운  
승리를 정위함으로  
써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창건 일흔돐  
을 맞는 용휘를 조  
국 창사에 뜻기 할  
위대한 승리의 해  
로 빛내여 갈 군중  
들의 드높은 혁명  
적 신념과 의지로  
세차게 끌어번지고  
있었다.

지방당, 청원기  
관, 근로단체, 풍  
장, 기업소, 농장,  
대학 등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  
들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김정은장군한가』 푸악으로 대회  
를 시작하였다.

### 평안남도에서

평안남도군중대회에서는 조선로  
동당 평안남도위원회 위원장 김두  
일동지의 보고에 이어 도민위원회  
위원장 강형봉동지, 북창화력  
발전련합기업소 지배인 김영설동  
지, 청천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 장순금동지, 평성식장공연대  
학 학장 체명봉동지가 결의로 춘을  
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올해  
신년사는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력관을 더해주고  
천만군민을 사회주의 강국건설에  
위해 고무추동하는 전투적기치이  
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지난해 지역생생의 기치하  
여 도민의 단란들과 혁명발전소들에  
서 종상의 통음을 새롭게 울리었으  
며 중리산의 둑체계 금이 세히 54돐  
회복자들을 훌륭히 생산한데 대  
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  
자들은 전후 천리마다 고조로 난국  
을 끊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양  
양을 일으킨 것처럼 전인민적인 총  
공세를 벌려 최후발악하는 적대세  
력들의 도전을 짓부시고 공화국의  
전반적 국력을 새로운 발전단계에  
돌려세워야 합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도민의 철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공화  
국 전면적 건설에서 이룩한 역사적 성



리를 새로운 발전의 도약대로 삼고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혁명  
적인 총공세를 과감히 전개해 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들은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를 비롯한 도안의 발전소들에서 계  
제시하신 강령적파업을 절저히 판  
철하는 데에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  
하였다.

그들은 지난해 전력증산률평에 앞  
장선 수룡발전소의 토동체금이 전형  
단위의 영예를 차지하고 일주군 남강  
협동농장의 경영성과를 더해나가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도내에서 내세운 전설목표를  
을 무조건 수행하는것과 함께 산림  
을 보호하고 국내원료의 자재로 다양하고  
질 좋은 소비물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며  
농업생산에 큰 힘을 넣어 인  
민생활향상에서 전진을 가져올데 대  
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도내에서 내세운 전설목표를

을 무조건 수행하는것과 함께 산림

을 보호하고 국내원료의 자재로 다양하고  
질 좋은 소비물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며  
농업생산에 큰 힘을 넣어 인  
민생활향상에서 전진을 가져올데 대  
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  
로자들이 당과 사상도 일심단결을  
강화하는데 제한시키고 복종시키며  
당의 인민총체주의 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 도를 당과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일심단결의 성세로 더욱 뜨  
거히 더러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강

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그들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

로자들이 당과 사상도 일심단결을

강화하는데 제한시키고 복종시키며  
당의 인민총체주의 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 도를 당과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일심단결의 성세로 더욱 뜨

거히 더러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강

조하였다.

그들은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

들이 사회주의 증산경쟁의 열풍속에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올해 알  
록 생산에서 통장훈을 부를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교원들의 자질과 능력을 절정적

으로 높이고 현대 교육발전 추세에  
맞게 교수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혁신하며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  
하였다.

그들은 당, 근로단체 조직들과 정원  
기관 일군들이 인민들의 요구와 력  
의 기준으로 사업을 실제하고 경  
개해나감으로써 인민대중제일주의 사

상을 초서으로 하는 우리 시 사회주  
의 우월성을 날금없이 펴시함에 대  
하여 강조하였다.

그들은 지난해 전력증산률평에 앞  
장선 수룡발전소의 토동체금이 전형  
단위의 영예를 차지하고 일주군 남강  
협동농장의 경영성과를 더해나가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도내에서 내세운 전설목표를

을 무조건 수행하는것과 함께 산림

을 보호하고 국내원료의 자재로 다양하고  
질 좋은 소비물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며  
농업생산에 큰 힘을 넣어 인  
민생활향상에서 전진을 가져올데 대  
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

로자들이 당과 사상도 일심단결을

강화하는데 제한시키고 복종시키며  
당의 인민총체주의 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 도를 당과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일심단결의 성세로 더욱 뜨

거히 더러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강

조하였다.

그들은 현대 교육발전 추세에 맞

게 교수내용과 방법을 혁신하여

보는 대 학생들을 세계를 앞서나가

는 주체형의 혁명인재, 창조형의

인재들도 준비시킬데 대하여 강조

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그들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

로자들이 당과 사상도 일심단결을

강화하는데 제한시키고 복종시키며  
당의 인민총체주의 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 도를 당과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일심단결의 성세로 더욱 뜨

거히 더러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강

조하였다.

그들은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

들이 사회주의 증산경쟁의 열풍속에

온기 있게 한 투한 대원의 원원이 있

다고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에 경제전

선전에서 활성화의 물파구를 열어

제끼기 위한 강렬한 두생에서 서로

운 기적적 승리를 끊임없이 이룩해나

갈길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보교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의 뜻에 뜨겁게

넘쳐나는 정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무한한 직정

속에 받아인은 도의 일군들과 당원

들과 근로자들은 용기백배, 기세충천

하여 전민총동력전에 한사람같이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들은 대회장에서 조선로동당

당 황해북도위원회 위원장 박영호동

지의 보고에 이어 도민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김현숙동지, 강제시험동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 김현숙동지, 도농촌경비위

원회장 김현숙동지 등이 결의로 춘을

하였다.

그들은 대회장에서 조선로동당

당 황해북도위원회 위원장 박영호동

지의 보고에 이어 도민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김현숙동지, 강제시험동농장

경영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김현숙동

지의 보고에 이어 도민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김현숙동지, 도농촌경비위

원회장 김현숙동지 등이 결의로 춘을

하였다.

그들은 대회장에서 조선로동당

당 황해북도위원회 위원장 박영호동

지의 보고에 이어 도민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김현숙동지, 강제시험동농장

경영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김현숙동

지의 보고에 이어 도민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김현숙동지, 도농촌경비위

원회장 김현숙동지 등이 결의로 춘을

하였다.

그들은 대회장에서 조선로동당

당 황해북도위원회 위원장 박영호동

지의 보고에 이어 도민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김현숙동지, 강제시험동농장

경영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김현숙동

지의 보고에 이어 도민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김현숙동지, 도농촌경비위

원회장 김현숙동지 등이 결의로 춘을

하였다.

그들은 대회장에서 조선로동당

당 황해북도위원회 위원장 박영호동

지의 보고에 이어 도민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김현숙동지, 강제시험동농장

경영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김현숙동

지의 보고에 이어 도민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김현숙동지, 도농촌경비위

원회장 김현숙동지 등이 결의로 춘을

하였다.

그들은 대회장에서 조선로동당

당 황해

# 우리는 위대한 승리를 확신한다

천만의 심장을 풍광 높이게 하는  
희성이 울렸다.

2018년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승리의 해로 될것입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이하신에 넘치는 말씀이 세계가 공인하는 전략국가의 지위에 당당히 털라온 업적높은 강국에 사는 천만군민의 기쁨을 무한히 격동시키고있다.

새해의 창업한 계획들이 시작되는 역사의 시각 인민의 지지를 받고있기 때문에 우리의 위엄은 칭송받고있는 확신으로 마음이 든든하고 하시며 전력을 다하여 인민의 기대에 기어이 보람답게 의지를 더욱 굽어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

비범한 빙도력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사회주의 강국건설시대에 무한대한 힘을 주어 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역사의 조종간을 역세계를 통하여 그리고 위대한 인민을 이끄시기에 우리 공화국은 자의 창건 일흔돐을 경축하는 뜻깊은 이해에 주체혁명사에 뿐가 할 자랑한 넋봉을 또다시 궁지 높이 아로 새길것이다.

\* \* \*

위대한 승리를 확신하는 혁명과 인민처럼 궁지 높은 혁명과 민은 없다. 과연 이렇게 마련된 오늘이면 가, 무엇으로 애안은 천만민족족의 승리이면 가.

시대를 개척하고 혁명을 전진시키는 힘은 인민대중에게 있으며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은 정진이다.

미증유의 시변들로 세계를 진감시킨 주체조선의 2017년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이 위대한 정치철학의 승리를 파시한 정의적인 해였다.

걸어온 승리의 천만리를 뒤돌아보는 우리의 가슴 참으로 뜨겁다.

놀라운 소식들이 꾸리를 물어 온 나라를 들썩이게 한 것이다.

주체조선의 무궁무진한 힘과 발전잠재력을 남김없이 시위한 혁명거리 건설의 승진포성, 달달적으로, 떤발적으로 터진 주체혁명강국건설사에

혹기 할 시변들…

그 차량스러운 역사에는 실로 깊디 깊은 혁명실록이 새겨져 있다.

위대한 승리가 이루어지면 나날에 파시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념과 의지가 오늘도 우리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준다.

그 어떤 계제와 알력 속에서도 추호의 혼들림없이 전진하는 주체조선의 기상에 절집한 적들의 이우성이 그칠 줄 알지 말면, 지난해 1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려명거리건설장을 찾으셨으니 선언하시였다.

려명거리건설장은 세상에 둘도 없는 인민의 지상학원을 자기의 손으로 보관듯이 일찌새워가는 천만군민의 불굴의 정신력, 흥물노도처 정진하는 주체조선의 기상, 하늘을 쪼를 아름다워 아름다워가는 사회주의 문명을 파시하는 끝이다.

미나시면서도 려명거리건설에 활약한 천만군민들과 군인들, 전설자들이 최후돌격전에 힘차게 펼쳐나

설인기 광주조국과 인민을 위한 전선으로 국방과학자, 기술들을 융합

부두에 떠인 폭발적인 정신력의 원

선이었다.

우리 조국을 주체의 빠강국, 빠강국으로 급부상시키는 승천로성을 힘으로 이어 장쾌히 머신 《3.18혁명》, 《7.4혁명》, 7.28의 거적승리, 《9월의 혁명폭풍》, 《11월 대사변》.

위험한 한반도 탄도탄총조립현장을 찾으시여 푸른 이를 간에 걸쳐 오랜 시간 전시들과 함께 계시면서 힘과 욕구를 북돋아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

한반도에도 이론세력에도 허먼지자속으로 아슬아슬한 시험발사현장을 찾으셨던 끝없이 시위한 혁명거리 건설의 승진포성, 달달적으로, 떤발적으로 터진 주체혁명강국건설사에

불소 총설제가, 결시대장, 정치위원

대승리 이전만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횡포한 도전과 결전하는 시련에

서도 추호의 혼들림없이 우리 당의 명진로선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딛

들어온 위대한 조선인에게 숭고한

정의와 감사를 드린다고 드롭게 말씀

하시여 만민의 심장을 때로 혹은 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혁명

방식이다.

민족의 강원 정신력은 매 사람의

정신력과 하나로 이어진다.

자기 민족의 정신력에 아무리 한

기여도 하지 못하는 삶은 백해무익

하다.

털움치 살아야 한다. 남이 한걸음

걸을 때 열책임을 뛰고 남이 열백

을 하면 천만가지를 하겠다는 포부

와 티끌로 퍼失落하는 기질이 바

로 우리 인민의 강의한 천진력이다.

애국주의는 무한대한 정신력의 일

뿌리이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인민

의 믿음과 힘에 의거하여 주체혁명

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두

쟁과 정진을 멈추지 않을것이며 전

체 인민이 존중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주의강국의 미래를 반드시

앞당겨 올것이라고 엄숙히 선언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역사

적인 신년사에서 우리의 승리는 벌

써 시작되었다.

조국에 대한 친정한 사랑, 바로

여기에서 우리 시대 인간의 합친 삶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향한 무한한 뜻이 모여 조국을 세상 제일 강대한 나라로 및내일 일임으로 퍼失落하는 것은 인간은 무서운 정신력을 폭발하

기미이다.

애국주의와 관련하여 어느 한 기

회에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시였다.

《오늘의 만리마대진군에 서 영웅적조선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을 넘김없이 폭발시켜야 합니다.》

승리는 절로 오지 않는다.

천만의 대호가 정신력을 흥폭발시

여기에서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

이 있다.

여러 차례 한번 산악을 떠밀어야 할 총

공세의 시각이 왔다.

천만군민의 정신력이 폭발하는 것

만큼 혁명이 전진한다는 것, 이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에게

역할을 했던 정신조이다.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세기되

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혁명

방식이다.

민족의 강원 정신력은 매 사람의

정신력과 하나로 이어진다.

자기 민족의 정신력에 아무리 한

기여도 하지 못하는 삶은 백해무익

하다.

털움치 살아야 한다. 남이 한걸음

걸을 때 열책임을 뛰고 남이 열백

을 하면 천만가지를 하겠다는 포부

와 티끌로 퍼失落하는 기질이 바

로 우리 인민의 강의한 천진력이다.

애국주의는 무한대한 정신력의 일

뿌리이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인민

의 믿음과 힘에 의거하여 주체혁명

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두

쟁과 정진을 멈추지 않을것이며 전

체 인민이 존중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주의강국의 미래를 반드시

앞당겨 올것이라고 엄숙히 선언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역사

적인 신년사에서 우리의 승리는 벌

써 시작되었다.

조국에 대한 친정한 사랑, 바로

여기에서 우리 시대 인간의 합친 삶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향한 무한한 뜻이 모여 조국을 세상 제일 강대한 나라로 및내일 일임으로 퍼失落하는 것은 인간은 무서운 정신력을 폭발하

기미이다.

애국주의와 관련하여 어느 한 기

회에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시였다.

《오늘의 만리마대진군에 서 영웅적조선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을 넘김없이 폭발시켜야 합니다.》

승리는 절로 오지 않는다.

우리 조국에 있어서 또 하나의 승

은 나아가서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

이 있다.

우리 조국에서 사회주의강국의 미래를 확신하는 것은 우리 조국에 대한 믿음과 힘에 의거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두

쟁과 정진을 멈추지 않을것이며 전

체 인민이 존중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주의강국의 미래를 반드시

앞당겨 올것이라고 엄숙히 선언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역사

적인 신년사에서 우리의 승리는 벌

써 시작되었다.

조국에 대한 친정한 사랑, 바로

여기에서 우리 시대 인간의 합친 삶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향한 무한한 뜻이 모여 조국을 세상 제일 강대한 나라로 및내일 일임으로 퍼失落하는 것은 인간은 무서운 정신력을 폭발하

기미이다.

애국주의와 관련하여 어느 한 기

회에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시였다.

《오늘의 만리마대진군에 서 영웅적조선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을 넘김없이 폭발시켜야 합니다.》

승리는 절로 오지 않는다.

우리 조국에 있어서 또 하나의 승

은 나아가서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

이 있다.

우리 조국에서 사회주의강국의 미래를 확신하는 것은 우리 조국에 대한 믿음과 힘에 의거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두

쟁과 정진을 멈추지 않을것이며 전

체 인민이 존중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주의강국의 미래를 반드시

앞당겨 올것이라고 엄숙히 선언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

경애하는 최



## 새로 건설된 강계스키장 개장식 진행

【강계 1월 7일】 조선중앙통신社 우리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게 하려는 당의 뜨거운 온정속에 강계스키장이 새로 일어서 개장되었다.

강계시 교외의 자북산에 일대에는 스키장에는 셀레 및 초급스키 주로, 중급스키 주로, 산도, 수평승강기, 치료실 등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의 체육활동과 휴식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풍성하게 갖추어져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의 뜨거운 인민사랑에 의하여 새로 건설된 강계스키장 개장식이 7일에 진행되었다.

사회주의물령 강국의 세보에 맞게 스키장이 건설됨으로써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을 건강한 체력의 소유자로 충분히 준비시키는데 이바지할 또 하나의 대중체육봉사기지가 마련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의 뜨거운 인민사랑에 의하여 새로 건설된 강계스키장 개장식이 7일에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자장도위원회 위원장 김재룡동지, 도민위원회 위원장 리형근동지, 관계부문 일군들, 건설자들, 강계시민의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개장식을 김재룡동지가主持하였다.

연설자는 강계스키장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덤원을 현실로 꽂아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뜨거운 사랑과 온정속에 속아난로동당시대

의 기념비적 창조물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게 하여야 합니다.』

연설자는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뜻을 범례 짚은 기간에 공사를 완공하였으며 도인의 기계공업부문 포동계 굽도 자강제철주 의 기지 높이 수평승강기와 산도 등 많은 설비와 미흡을 제작, 설치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누구나 체육을 즐겨하고

이어서나 체육器材로 블록제 하에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함에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모두가 건강한 몸으로 사회주의 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 할 때 대하여 언급하였다.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게 하여야 합니다.』

연설자는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뜻을 실현하고 사회주의의 문명이 축구를 유치한 후에도 더욱 많이 더 흥미롭게 일어서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연설자는 도인의 전체 일군들

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 사업관에 한사람같이 맹세나심으로써 자강방을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로 풍당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는 인민의 러친으로 편법시켜나갈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개장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새로 건설된 스키장을 돌아보았으며 체육 및 봉사시설들을 리용하였다.



## 새해 농사차비로 세차게 끓어번진다

안변군에 서

또 하루, 새날이 푸른 푸른 밝아오는 푸른이다.

어디선가 뜨락포르트의 발동 소리 기세 좋게 물려온다.

벌써 고리를 물고 소발구지형 럴, 불은 기를 휘날리며 조선으로 나가는 사람들의 힘찬 말자 목소리...

대지는 아직 흰 눈에 덮여있고 한계율의 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안변군안의 험동농장들은 봄을 미瘴하여 끓어번진지 시작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세계종자와 다수학농법, 능률적인 농기계들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이고 농사를 과학 기술적으로 차이로써 농작물과 표를 반드시 절명하며 험동농장을 꾸밀 때에는 청진과 표과, 광진, 온실남새와 버섯 생산을 늘여야 합니다.』

강변도정신의 창조자들답게 안변군 천성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들이 받들고 훌륭히 일하고 험동농장에서 새로운 농작물을 창작하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를 받아안고 리당일군과 함께 일군들은 청진과 표과, 광진, 온실남새와 버섯 생산을 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를 듣고 훌륭히 일하고 험동농장에서 새로운 농작물을 창작하고 있다.

올해 알곡생산 목표를 풀마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들부터가 앞장서겠다고 훌륭히 일하고 험동농장에서 새로운 농작물을 창작하고 있다.

리안의 작업반들에서 땅을 깨끗하게 깊숙이 위한 투쟁이 새롭게 벌어졌다.

뜨락포르트를 비롯한 운반수

습짓어드는 고장이다. 천성협동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은 잘 살게 하시라고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새기신 사항의 자유는 이름없는 조건길과 마을마다에 참으로 끌어세우고 있다.

그리고 천성협동농장은 일군들이 거름을 가득가득 심고 월세 없이 조건으로 달렸고 작업반, 분조를마다에서 거름생산과 산재획을 넘쳐 수령하기 위한 사업의 경쟁이 힘 있게 벌어지고 있다.

천성의 물길은 웅험동농장과 하천협동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모든 농장들의 표준마다에서도 더더욱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거름내, 푸른 물을 만으며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걸싸게 일을 해제하고 있는 일꾼들이 보인다.

거름을 잘 사람들의 물결이 표전을 덮었고 태어나온 그들의 얼굴들에서 데온 김이 물벼락이오고 있다.

거름을 싸고 월세 없이 달리는 뜨락포르트의 빛깔 속에서 농민들이 농작물과 함께 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모든 농장들의 표준마다에서도 더더욱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거름을 싸고 월세 없이 달리는 뜨락포르트의 빛깔 속에서 농민들이 농작물과 함께 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모든 농장들의 표준마다에서도 더더욱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거름을 싸고 월세 없이 달리는 뜨락포르트의 빛깔 속에서 농민들이 농작물과 함께 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모든 농장들의 표준마다에서도 더더욱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거름을 싸고 월세 없이 달리는 뜨락포르트의 빛깔 속에서 농민들이 농작물과 함께 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모든 농장들의 표준마다에서도 더더욱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거름을 싸고 월세 없이 달리는 뜨락포르트의 빛깔 속에서 농민들이 농작물과 함께 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모든 농장들의 표준마다에서도 더더욱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거름을 싸고 월세 없이 달리는 뜨락포르트의 빛깔 속에서 농민들이 농작물과 함께 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모든 농장들의 표준마다에서도 더더욱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거름을 싸고 월세 없이 달리는 뜨락포르트의 빛깔 속에서 농민들이 농작물과 함께 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모든 농장들의 표준마다에서도 더더욱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거름을 싸고 월세 없이 달리는 뜨락포르트의 빛깔 속에서 농민들이 농작물과 함께 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모든 농장들의 표준마다에서도 더더욱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거름을 싸고 월세 없이 달리는 뜨락포르트의 빛깔 속에서 농민들이 농작물과 함께 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모든 농장들의 표준마다에서도 더더욱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거름을 싸고 월세 없이 달리는 뜨락포르트의 빛깔 속에서 농민들이 농작물과 함께 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모든 농장들의 표준마다에서도 더더욱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거름을 싸고 월세 없이 달리는 뜨락포르트의 빛깔 속에서 농민들이 농작물과 함께 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모든 농장들의 표준마다에서도 더더욱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거름을 싸고 월세 없이 달리는 뜨락포르트의 빛깔 속에서 농민들이 농작물과 함께 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모든 농장들의 표준마다에서도 더더욱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거름을 싸고 월세 없이 달리는 뜨락포르트의 빛깔 속에서 농민들이 농작물과 함께 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모든 농장들의 표준마다에서도 더더욱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거름을 싸고 월세 없이 달리는 뜨락포르트의 빛깔 속에서 농민들이 농작물과 함께 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모든 농장들의 표준마다에서도 더더욱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거름을 싸고 월세 없이 달리는 뜨락포르트의 빛깔 속에서 농민들이 농작물과 함께 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모든 농장들의 표준마다에서도 더더욱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거름을 싸고 월세 없이 달리는 뜨락포르트의 빛깔 속에서 농민들이 농작물과 함께 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모든 농장들의 표준마다에서도 더더욱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거름을 싸고 월세 없이 달리는 뜨락포르트의 빛깔 속에서 농민들이 농작물과 함께 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모든 농장들의 표준마다에서도 더더욱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거름을 싸고 월세 없이 달리는 뜨락포르트의 빛깔 속에서 농민들이 농작물과 함께 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모든 농장들의 표준마다에서도 더더욱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거름을 싸고 월세 없이 달리는 뜨락포르트의 빛깔 속에서 농민들이 농작물과 함께 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모든 농장들의 표준마다에서도 더더욱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거름을 싸고 월세 없이 달리는 뜨락포르트의 빛깔 속에서 농민들이 농작물과 함께 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모든 농장들의 표준마다에서도 더더욱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거름을 싸고 월세 없이 달리는 뜨락포르트의 빛깔 속에서 농민들이 농작물과 함께 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모든 농장들의 표준마다에서도 더더욱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거름을 싸고 월세 없이 달리는 뜨락포르트의 빛깔 속에서 농민들이 농작물과 함께 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모든 농장들의 표준마다에서도 더더욱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거름을 싸고 월세 없이 달리는 뜨락포르트의 빛깔 속에서 농민들이 농작물과 함께 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모든 농장들의 표준마다에서도 더더욱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거름을 싸고 월세 없이 달리는 뜨락포르트의 빛깔 속에서 농민들이 농작물과 함께 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모든 농장들의 표준마다에서도 더더욱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거름을 싸고 월세 없이 달리는 뜨락포르트의 빛깔 속에서 농민들이 농작물과 함께 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모든 농장들의 표준마다에서도 더더욱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거름을 싸고 월세 없이 달리는 뜨락포르트의 빛깔 속에서 농민들이 농작물과 함께 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모든 농장들의 표준마다에서도 더더욱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거름을 싸고 월세 없이 달리는 뜨락포르트의 빛깔 속에서 농민들이 농작물과 함께 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모든 농장들의 표준마다에서도 더더욱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거름을 싸고 월세 없이 달리는 뜨락포르트의 빛깔 속에서 농민들이 농작물과 함께 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모든 농장들의 표준마다에서도 더더욱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거름을 싸고 월세 없이 달리는 뜨락포르트의 빛깔 속에서 농민들이 농작물과 함께 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모든 농장들의 표준마다에서도 더더욱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거름을 싸고 월세 없이 달리는 뜨락포르트의 빛깔 속에서 농민들이 농작물과 함께 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모든 농장들의 표준마다에서도 더더욱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거름을 싸고 월세 없이 달리는 뜨락포르트의 빛깔 속에서 농민들이 농작물과 함께 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모든 농장들의 표준마다에서도 더더욱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거름을 싸고 월세 없이 달리는 뜨락포르트의 빛깔 속에서 농민들이 농작물과 함께 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모든 농장들의 표준마다에서도 더더욱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거름을 싸고 월세 없이 달리는 뜨락포르트의 빛깔 속에서 농민들이 농작물과 함께 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모든 농장들의 표준마다에서도 더더욱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거름을 싸고 월세 없이 달리는 뜨락포르트의 빛깔 속에서 농민들이 농작물과 함께 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모든 농장들의 표준마다에서도 더더욱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거름을 싸고 월세 없이 달리는 뜨락포르트의 빛깔 속에서 농민들이 농작물과 함께 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모든 농장들의 표준마다에서도 더더욱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거름을 싸고 월세 없이 달리는 뜨락포르트의 빛깔 속에서 농민들이 농작물과 함께 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모든 농장들의 표준마다에서도 더더욱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거름을 싸고 월세 없이 달리는 뜨락포르트의 빛깔 속에서 농민들이 농작물과 함께 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모든 농장들의 표준마다에서도 더더욱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거름을 싸고 월세 없이 달리는 뜨락포르트의 빛깔 속에서 농민들이 농작물과 함께 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모든 농장들의 표준마다에서도 더더욱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거름을 싸고 월세 없이 달리는 뜨락포르트의 빛깔 속에서 농민들이 농작물과 함께 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모든 농장들의 표준마다에서도 더더욱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거름을 싸고 월세 없이 달리는 뜨락포르트의 빛깔 속에서 농민들이 농작물과 함께 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모든 농장들의 표준마다에서도 더더욱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거름을 싸고 월세 없이 달리는 뜨락포르트의 빛깔 속에서 농민들이 농작물과 함께 농장을 비롯한



